

국정 지지율 전국은 그대로인데 ... 호남은 77% → 33% '반토막'

박근혜 정부 1년 '100% 대한민국'은 어디로 ...

예산 '절끔' 인사 '소외' 실망 ... 갈수록 신뢰 추락

지난 2012년 12월5일 목포 유세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대량해임 인사부터 펼쳐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같은 해 10월23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100% 대한민국 정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공직에 대량해임 인사를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같은 약속 때문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2월 마지막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호남 지역에서 77%가 긍정적이었다. 부정적 전망은 14%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 취임 100일 평가인 한국갤럽의 지난해 6월 첫째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호남지역의 긍정적 반응은 40%, 부정적 견해는 28%였다.

취임 1년 후인 2월 셋째주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3%로 줄었고, 부정 평가는 54%로 늘었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전국적으로는 56%가 긍정 평가했고 부정 평가는 34%에 머물렀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2년차 1분기 때 지지율(한국갤럽)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45%,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 60%, 노무현 전 대통령 22%, 이명박 전 대통령 32% 등이었다.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호남 지지도가 유독 급락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 인사에서 과거 어느 정권보다 호남 소외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낸 '2014년 도로사업예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667억원인 데 비해 영남지역 고속도로 예산은 13.1배인 9755억원이나 됐다. 국도 건설 예산에서도 호남은 59곳 7746억원이었지만 영남은 1.5배인 75개 사업 1조

1847억원이 배정됐다. 사회기반시설 예산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의 올해 증액 예산 4397억원 중 영남에 2209억원(50.2%)이 내려간 반면 호남에는 13%인 576억원만 내려갔다.

호남에서 인사 차별에 대한 불만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이명박정부 첫 내각에서 장차관급 40명 중 10명이었다 호남출신 인사가 박근혜정부에서는 37명 중 6명으로 축소됐다"면서 "4대 권력기관장에도 호남은 없다"고 분석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 152명의 출신지역은 영남출신이 62명(40.8%)에 달한 반면 호남은 27명(17.8%)에 불과했다. 또 전국 295개 공공기관장의 경우도 영남 출신은 96명으로 전체 기관장 가운데 34.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호남 출신은 32명(11.6%)뿐이었다.

이 같은 인사소외는 금융권과 같은 민간의 영역으로까지 이어져 시중은행 7곳과 금융지주 6곳의 고위직 임원과 사외이사 103명 중 영남이 34명으로 33%인 반면 호남 출신은 9명으로 8.7%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초공천 않겠다" 안철수(오른쪽 두 번째) 새정치연합(가칭) 중앙운영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승부수에 허절린 민주당 ... '무공천' 여부 촉각

지역 기초선거 구도 공천 vs 무공천 대결

새정치연합이 24일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혀 선거 판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여야는 물론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 결정이 선거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무공천' 변수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안철수 '무공천' 선언 배경=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새정치'를 강조하며 지방선거에서 실질적인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결정했던 새누리당과 막판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공약단체장 선거에 사실상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의 승부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선한 결정으로 그동안 다소 정체됐던 안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적 세력화가 어려워지면서 공약단체장 선거에서도 약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 vs 무공천=새정치연합이 이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는 '공천 VS 무공천' 이원화 구도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신생 정

당의 현실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호남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 영입이 쉽지 않음에도 당원 모집의 한계는 물론 전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결정했던 새누리당과 막판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공약단체장 선거에 사실상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의 승부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선한 결정으로 그동안 다소 정체됐던 안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적 세력화가 어려워지면서 공약단체장 선거에서도 약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 vs 무공천=새정치연합이 이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는 '공천 VS 무공천' 이원화 구도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신생 정

당의 현실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호남을 제외하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후보 영입이 쉽지 않음에도 당원 모집의 한계는 물론 전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결정했던 새누리당과 막판 눈치보기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이 국민과의 약속을 명분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공약단체장 선거에 사실상 '올인'하는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의 승부수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선한 결정으로 그동안 다소 정체됐던 안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함에 따라 실질적인 정치적 세력화가 어려워지면서 공약단체장 선거에서도 약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천 vs 무공천=새정치연합이 이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는 '공천 VS 무공천' 이원화 구도의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신생 정

광주·전남 대선공약 추진 의지 과연 있나?

지역 공약예산 반영률
광주 38%·전남 5.84%
대구·경북은 88%·63%

박근혜정부는 인사와 예산의 탕평책뿐 아니라 대선공약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세웠던 광주지역 대선 공약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지원 ▲세계적 민주인권평화도시 구축사업 지원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단계적 추진 ▲광주 도심 하천 생태 복원사업 추진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추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문화예술산업 지원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 추진 등이다.

전남지역 대선 공약은 ▲호남 KTX(송정~목포) 건설사업 추진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 단계적 추진 ▲전남~경남 간 한려대교 건설 검토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우주항공 복합 관광명소 구축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동북아 해양관광특구 조성 지원 및 서남해안레저도시 건설사업 지원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광주와 전남의 각 7개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11개씩 공약사업을 선정해 지난해 7월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 공약과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이다.

당장 정부는 이들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비율에서 추진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 등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공약사업 예산 반영률은 광주가 38.48%, 전남이 5.84%에 불과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지역 반영률은 각각 88.36%와 63.45%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의 경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사전기획 용역비 등 1793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반영된 것은 690억원에 그

쳤다.

전남은 더욱 심각해 4293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된 국비는 고작 252억원에 불과했다. 단순히 액수만 놓고 볼 때 경기도의 35분의 1, 강원도의 32분의 1에 불과하고 전북(6952억원)에 비해서도 28분의 1 수준이다.

11개 사업 중 ▲순천만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지원 ▲호남고속철도 송정~목포 간 건설 ▲여수 미래소재산업단지 조성 ▲고흥 우주항공복합시험평가센터 건립 ▲과학로켓 개발사업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 등 6개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의 관계자는 24일 "정부안에서 빠진 예산 중 일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하긴 했지만 정부가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들 공약사업이 5년 동안 착실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점 (삼일공원 상일로 입구) : 02)2276-0577-9 강남점 (강남고속터미널 옆) : 02)3477-5110 종로2점 (금강제약 옆) : 02)733-0220 송파점 (신촌역 2번 출구) : 02)419-3388 경기 안성점 (구.사민회관 옆) : 02)421-2288 부평점 (부평역 옆) : 03)517-5110 수원점 (남문 옆) : 03)1246-5110 의정부점 (보신터리 동국병원 옆) : 03)1821-6655 안양점 (백산소방2001 어울림 옆) : 03)1469-0110-1 평택점 (평택역 옆) : 03)1658-5110 용인점 (용인네거리) : 03)1336-1090 오산점 (국민은행 2층) : 03)1378-4183 부천점 (롯데백화점 옆) : 03)2329-4400 남양주점 (평내 호평역 옆) : 03)1593-9803 부산 서면점 (서면보타리) : 05)1818-8800 서면점 (서면보타리) : 05)1266-7200 울산 울산점 (공영문화센터) : 05)2268-2283 경남 마산점 (마산역 옆) : 05)297-6000 전주점 (중앙보타리 옆) : 05)745-9870 대구 동원점 (동원네거리) : 05)3425-4440 상곡점 (삼육대가라) : 05)3425-1511 남일점 (아라대미극장 옆) : 05)3425-7575 경북 포항점 (해곡리) : 05)4244-5110 안동점 (구.안동농고내거리) : 05)4859-2248 광주 광주점 (금남로 47역 사거리) : 06)2225-5110 광주점 (백운광장) : 06)2651-4477 전남 순천점 (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 : 06)1752-8845 전북 전주점 (신복보타리) : 06)252-5728 군산점 (구.서창점 옆) : 06)3446-0198 익산점 (북부시청내거리) : 06)3838-5600 남원점 (시청내거리) : 06)3632-2626 대전 대전점 (도심역 옆) : 04)2254-5110 대전점 (충촌보타리) : 04)2222-3388 대전점 (대전역 옆) : 04)2255-4900 충남 천안점 (천안역 옆) : 04)1553-2888 광주점 (광주순사거리) : 04)1852-5110 충북 청주점 (현.개포로 구.속리산교회 맞편) : 04)322-1177-8 충주점 (삼원보타리) : 04)3822-1414 강원 원주점 (죽전오거리) : 03)647-0588 원주점 (원주광장 옆) : 03)253-5110 제주 제주점 (영양보타리) : 06)1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인증 국제품질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0120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GMPC인증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 광주점 (광주 4구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점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

■ 대구점 (동원네거리 세기보청기) (05)3425-4440

■ 부산점 (서면보타리 세기보청기) (05)1818-8800

■ 울산점 (공영문화센터 세기보청기) (05)2268-2283

■ 서울점 (삼일공원 세기보청기) (02)2276-0577

■ 수원점 (남문 세기보청기) (03)1246-5110

■ 안양점 (백산소방2001 세기보청기) (03)1821-6655